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위 '기로'

도의회 운영위, 내일 결의안·반대 청원 심의
본회의 미회부·심사보류 등 경우의 수 다양
심사 결과 따라 항방 결정... 논란은 불가피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항방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찬반단체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공론화를 두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2차 회의를 갖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공항 생산음·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 여부는 1차 관문인 운영위원회의 처리 결과와 관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거나(사실상 부결), 심사보류, 상임위 의결없이 본회의부의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점쳐지고 있다.

결의안은 의회운영위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발의자인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의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심사보류 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안건으로 직권 상

정이 힘들다.

반면 운영위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속의형 도민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한다. 결의안은 특별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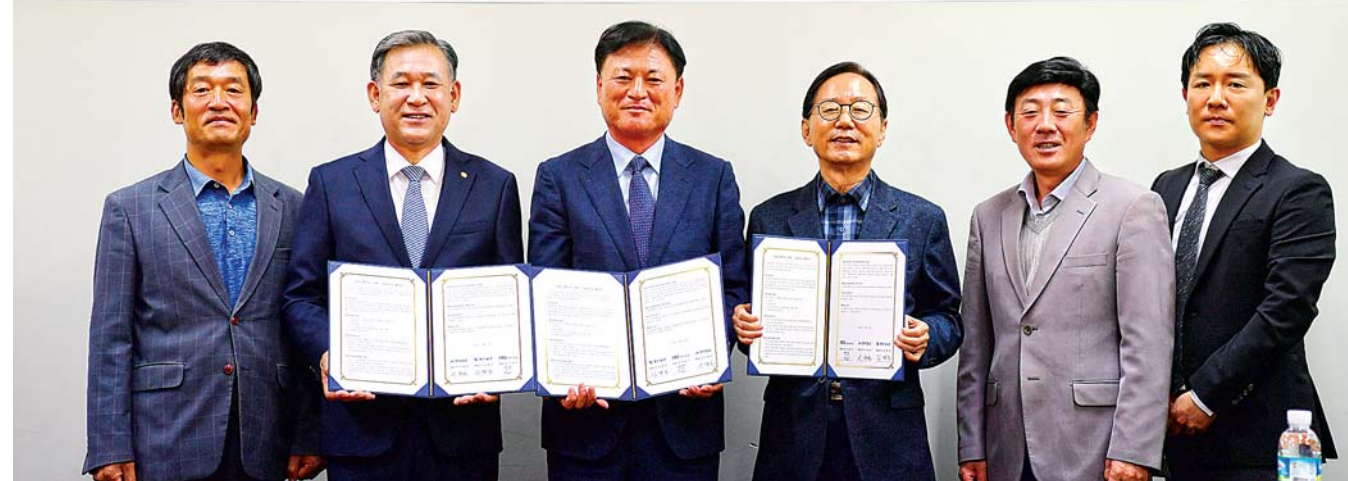
특별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속의형 도민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속의형 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속의형 도민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속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된다라도 '도민공론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집행부와는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다른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020 제주의 선택' 공동보도 협약'

2019년 10월 29일 JIBS회의실



한라일보와 JIBS제주방송·제민일보는 29일 JIBS제주방송 회의실에서 '2020 제주의 선택' 공동보도 협약식을 가졌다. 3사는 선거 기간 동안 공명·정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여론조사 및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와 함께 선거 후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 기획을 진행한다. 강희만기자

"공명·정책선거 실현에 언론이 앞장"

한라일보·JIBS·제민일보 어제 총선보도 업무협약
선거로 불거진 지역사회 갈등도 공동기획으로 해소

내년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제주 대표 언론 3사가 손을 맞잡았다.

한라일보(대표이사 이웅곤)와 JIBS제주방송(대표이사 이남기), 제민일보(대표이사 김영진) 등 제주 도내 언론 3사는 29일 JIBS제주방송 3층 회의실에서 '2020 제주의 선택' 공동보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및 공정선거 보도를 위해 이뤄졌다.

이에 언론 3사는 선거 기간 동안 공명·정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여론조사와 함께 후보자를 초청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실시, 보도한다. 특히 선거 이후 남아 있을 수 있는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기획'을 진행, 선거 때만 언론사가 모이는 기존 선거보도 방식에서 탈피할 계획이다.

이웅곤 대표이사는 "JIBS제주방송, 제민일보와의 협약이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제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

겠다"고 약속했다.

이남기 대표이사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간 협약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늘 협약이 가장 돋보이고, 꽃 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표이사는 "내년 총선 때문에 이뤄진 협약이지만, 선거 부문 외 다른 업무에서도 3사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언론 3사는 여론조사를 3차례 실시, 도민 참정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공동 토론회에서도 함께 의제·패널 설정을 진행,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방향성을 진단하게 된다. 송은범기자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속도날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관문 통과
주민상생방안 마련 등 부대의견 달고 가결

해양환경 파괴 및 해수욕장 경관사유화 논란 속 장기 표류해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속개한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심의한 결과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방안 마련 추진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

관협정을 체결해 추진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 층 낮춰 추진 ▷카지노 사업과 관련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성 ▷해안 사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 지속적 모니터링 등 17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사유화,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환경 파괴 문제, 카지노 진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심사보류했던 환경도시위원

회는 이날 심의에서도 경관사유화와 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를 제기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 분마이호랜드(주)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0년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이 시작된 뒤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000㎡)로 최초 지정고시됐다.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에 이어 2009년에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완료됐지만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반발 등에 부닥쳐 공사가 중단된 뒤 표류해오다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은지기자

2019 정책박람회... 내달 1일 제주시 삼다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정책박람회'를 도의회 및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내달 1일 오후 2~7시 연동 도청 옆 삼다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고등학생·대학생·도의원·기관장 별로 정책토론회를 가지면서 각계의 다양한 정책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행사 장소를 삼다공원으

로 정했다.

정책박람회에서 고등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좋은 생각들' 코너로, 동아리 5팀이 나와서 교육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며,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청년이 바라보는 제주' 코너로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제주도의 인구유입 정책과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원픽! 의원정책 한마디' 코너를 통해 도의원 6명이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박람회 마지막 순서는 오후 5시부터 도시사와 도의회회장, 교육감이 청년패널과 함께 '제주의 100년,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기획 / 7면... 2019 한라에서 백두까지 (7)압록강과 단동을 가다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개최를 축하합니다.

'한국어 IB' 공교육 운영 확정!

생각을 꺼내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육,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생각을 꺼내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육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